

기업탐방 및 사업화 기술 소개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는 렌즈 생산

□ 이재선 /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대표: 이을성)의 주요 제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바일 렌즈 및 렌즈 모듈이다. 이것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서 해성옵틱스에서는 8Mega급 이상의 고화소용 렌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된 렌즈는 삼성전기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특히 현재는 삼성전자 갤럭시 S4용 13Mega급 렌즈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8Mega 이상 고화소급 생산 Capa는 월 500만 개를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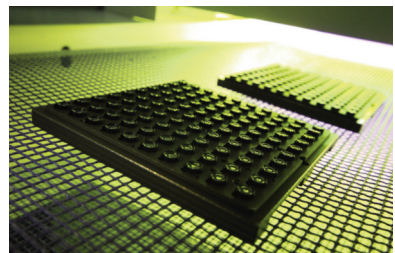
두 번째는 카메라 모듈과 AF 액츄에이터 모듈이다. 카메라 모듈은 크게 렌즈 모듈, 액츄에이터, 이미지센서로 구분된다.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고화소용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능적으로도 Fixed Type이 아닌 A/F(Auto Focus) 모듈이 기본적으로 장착된다. 해성옵틱스에서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갤럭시 S4 보급형 모델 등에 적용되는 고화소 카메라 모듈을 월 200만개 이상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기



〈그림 1〉 이을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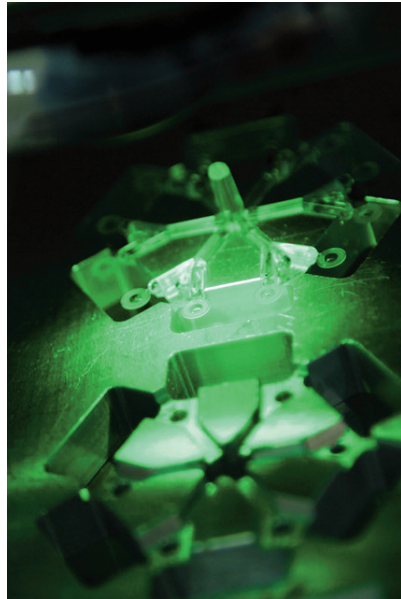
〈그림 2〉 수원공장 전경



〈그림 3〉 UV 경화기



〈그림 4〉 렌즈 외관 검사



〈그림 5〉 형상 측정기

회가 되어 프리미엄 제품의 핵심기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차량용 렌즈다. 차량용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 등이 있으며,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는 광각렌즈가 적용된다. 해성옵틱스는 광각렌즈의 왜곡을 보정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현재 현대 모비스 후방 카메라용으로 승인 진행 중이다. 또한, 차량 추돌 경보장치로 볼보 등에 공급될 전방용 카메라 렌즈의 개발 계약을 이스라엘의 Highwave Technologies와 체결했다.

해성옵틱스는 렌즈의 기능과 퀄리티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렌즈는 구면에서 비구면으로, 유리에서 플라스틱 하이브리드로 발전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고도의 정밀함이며, 기술개발이나 상품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치밀함과 예리함이 필요하다.

기술의 진화가 한계를 맞으면 그 업계는 아주 치

열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 전쟁에 빠지게 된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야 한다. 해성옵틱스는 ‘일괄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렌즈부터 카메라 모듈까지 일괄생산이 가능한 회사는 해성옵틱스가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도 높은 데다 일괄생산으로 원가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이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 베트남의 경쟁력, 메이드 인 마켓 (Made in Market)

해성옵틱스는 삼성전자가 향후 휴대폰 생산을 가장 많이 하게 될 베트남 지역에 삼성전기 협력사로는 최초로 진출하여 제품 납품을 시작했다. 기술직, 생산직을 포함하여 총 1,750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현재 월간 생산량은 200만개 정도이나 최근 설비 용량을 고화소급 기준 월 400만개로 확장하여

2014년 매출목표 3,000억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미래

스마트폰 시장은 2008년 이후 연평균 48%의 고 성장을 지속해왔다. 스마트폰 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신규수요 성장 둔화’, ‘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에 의한 교체 주기 연장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스마트폰 시장은 30.4% 성장한 8.8억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옵틱스의 역할과 성장 또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13년도에는 13Mega 카메라 모듈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 모듈은 2012년 8Mega에 이어 2013년 13Mega 시장까지 성장했다. 2013년에도 2012년 때와 같은 큰 폭의 성장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성옵틱스의 역사를 짚 훑어보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

인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끊임없이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을성 대표의 기업철학 중에서 첫째가 바로 ‘항상 미리 준비하자’는 것임을 볼 때, 성장 요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성옵틱스가 오늘날 성장하기까지 크고 작은 돌파가 있었다.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카메라 모듈 사업까지 진출하여 동종업계 중에서 일괄생산체제를 갖춘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

해성옵틱스는 새로운 빛의 세계를 제시하는 기업이다. 품질과 납기의 일류화,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해외법인의 설립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디지털 광학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오랜 연륜으로 유려한 노하우를 지니면서도 도전하고 혁신하는 젊은 감각으로 세계 1등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의 성장은 언제나 내일을 향한다.

필자소개



이재선

- 2002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1년 ~ 2003년 : SPDI 마케팅팀
- 2004년 ~ 2005년 : 삼성전자 구매전략팀
- 2005년 ~ 현재 : 해성옵틱스(주) 경영지원본부/상무이사